끝없는 자리이타 보살행의 이상적 인간

사찰벽화 명작순례

②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현보살 벽화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살 벽화.



영덕 장육사 대웅전 보현보살 벽화.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상적 수행자

대승불교의 두드러진 특성은 보살 개념의 성립에 있다. 보살(菩薩)의 어원은 인도 산스크리트어 '보디삿트바(bodhisattva)'로, 팔리어로는 '보디삿따(Bodhisatta)'다. '보디'는 깨달음, '삿따'는 존재를 뜻한다. 중국어로 한역해서 '보리살타(菩提薩埵)', 줄여서 '보살'이 됐다. 어원을 통해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보살 개념은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이고, 대승불교의 상징적 존재다. 대승불교의 보살철학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압축된다.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구제를 실천한다. 그것을 '보살행'이라 부른다.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다. 보살행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성불에 이르는 것이다. 부파불교에서 자기 자신 중심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성문, 연각의 이승(二乘)과는 다른 차원의 수행자상을 정립한 것이다. 보살은 대승불교 수행자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됐다.

문수·보현보살은 대승불교의 상징

부처가 되는 보살행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 하나는 지혜, 다른 하나는 자비행이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두 기둥이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이원성을 초월한 것으로 둘이 아니다. 이에 상징적인 두 보살이 출현한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그 주인공이다. 상구보리-문수보살-지혜, 하화중생-보현보살-자리이타행의 양 날개를 갖춘다. 두 분은 불가분의 지행합일의 통일체로서 한 몸이다.

문수보현보살 벽화는 영덕 장육사 대웅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청송 대전사 보광전, 청주 월리사 대웅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등 10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교의를 반영한 종교적 성스러움과 예술의 미를 갖춘 벽화로는 장육사와 제천 신륵사, 직지사 벽화 등 셋을 손꼽는 데 이의가 없다. 세 벽화는 한국산사 문수보현보살 벽화의 수작으로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벽화의 배치나 조형 형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비교 대상이 된다. 세 벽화를 비교·분석하면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서의 언급처럼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 내고 차이는 반복을 만들어 내는 원리에 수긍의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른다. 거듭되는 반복은 차이를 유발하며 그 차이가 새로움의 고유성을 부여하는 생명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장육사 대웅전의 문수보현보살 벽화를 다룬다.

장육사 대웅전의 문수보현보살 벽화는 형식적 법식을 두루 구현하고 있다. 대웅전 동쪽 벽면엔 여의 가지를 손에 쥔 사자 탄 문수보살을, 서쪽 벽면엔 붉은 연꽃 가지를 손에 쥔 코끼리 탄 보현보살을 그렸다. 여의보주 가지는 지혜, 연꽃 가지는 자비의 상징이다. 벽화에서 두 보살은 불화나 불상에서의 성인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 양쪽에 쌍상투를 묶은 동자 모습으로 묘사했다. 왜 동자상인가? 믿음으로 발심하고 보현행원의 대행에 나서는 것이 티 없이 순수하고 진실되며 청정하기 때문이다.

채색원리도 규범과는 약간 다르다. 규범적으로는 동-문수보살-청색 사자, 서-보현보살-흰 코끼리의 체계로 그린다. 동-청색, 서-백색의 구도로 방위에 맞춰 색을 베푼다. 장육사 대웅전 두 보살도의 사자와 코끼리 채색에선 흰색 바탕 위에 연한 황색을 가볍게 덧칠한 색으로 통일했다. 반복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원래 예술에선 모방은 있되, 규범은 강제될 수 없다. 예술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의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불화에선 특유의 법식이 작용한다. 불화는 대단히 보수적이며 역사적인 회화다. 장인에서 장인으로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사자전승의 계보가 있고 저마다의 독특한 화풍이 있다. 동시에 규범의 보수적 가치는 유지하되 개성 있는 창조로 법고창신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장인의 소명이기도 하다. 장육사 벽화에는 장인의 개성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

'문수달천진', '보현명연기'의 방제

대웅전 동서 벽면은 힘과 '아우라'로 충만하다. 무엇보다 벽화의 크기가 대형이다. 가로 205㎝, 세로 130㎝에 이른다. 화면은 대략 8:5=1.6:1의 황금비율로 안정감을 갖췄다. 안정적인 화면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재는 바람에 나부끼는 보살의 천의자락과 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 코끼리의 야생성이다.

보살은 '깨달음 추구하는 존재'란 의미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자리이타
사자 탄 문수보살–동쪽 벽–여의 가지
코끼리 탄 보현보살–서쪽 벽–연꽃 가지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현보살 벽화 방제.

두 보살 벽화엔 보살의 공덕을 압축한 방제를 새겨 뒀다. 검은색 바탕에 단정한 해서체의 흰 글씨로 각각 다섯 자씩 적었다. '문수달천진(文殊達天眞)'과 '보현명연기(普賢明緣起)'다. 하늘의 진리로 직역되는 '천진'은 진리 그 자체인 '진여'를 이른다. '문수달천진', 문수보살은 진여를 통달했다는 것이다. '보현명연기', 즉 보현은 연기를 밝혔다고 적었다. 보현보살이 밝힌 연기는 무엇일까? '사사무애 법계연기'다. 사사무애는 '삼라만상이 둘이 아니다'는 의미다. 보현보살은 그 연기의 진리를 밝혔다는 것, 즉 증명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보현보살은 진리인 이(理)를 바탕으로 자비행을 실천함으로써 증명해 보였다. 삼라만상이 둘이 아님을 자비행의 실천으로 실증하신 분이 보현보살이라는 것이다. '대공양예참전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도 나오는 간결한 두 구절로써 벽화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중언부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저토록 간결하고 명쾌한 그림 방제는 본 적이 없다. 장육사 대웅전의 문수보현보살도가 가진 특별한 의의는 저 방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코끼리처럼 흔들림 없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믿고 두려움 없이 용맹정진하는 것이다.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또 올바른 실천은 흔들림 없고 확고부동하다. 진리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실천은 코끼리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묘사한다. 벽화 속에 일체의 경전 가르침이 녹아 있다. 벽화도 또 하나의 경전이다.

그러한 뜻은 벽화 세부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두 분의 발을 눈여겨보자. 문수보살은 맨발이다. 보현보살은 끈 달린 샌들 형식의 신을 신었다. 문수보살은 사자좌에 앉아 선정에 들었고 보현보살은 길 위, 곧 보현행에 나섰음을 암시한다. 두 서수들도 마찬가지다. 두 서수의 꼬리 표현에서도 일관된 의지가 보인다.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는 이미 땅에 엎드린 상태다. 꼬리는 엎드린 얼굴 쪽으로 휙 감았다. 엎드려 쉰 지 오래됐다.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코끼리를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잘 뻗어 난 상아 여섯을 가진 코끼리는 긴 코를 하늘로 쳐들었다. 입을 벌려 혀도 세웠다. 길게 울부짖으며 포효하는 듯한 모습이다. 힘차고 커다란 꼬리마저 하늘로 치켜세웠다. 뒷발엔 앞으로 향하는 운동력을 실었고 앞의 왼발은 한 발 앞으로 쭉 내디뎠다. 큰 발바닥엔 신중함과 흔들림 없는 부동의 묵직함이 뱄다. 보현행의 특성이 두루 녹아 있다. 묵묵히 흔들림 없이 부단하게 전진하는 길, 벽화는 그것이 보현행임을 일깨워 준다.

바람에 나부끼는 천의 자락의 처리나 구름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수보살의 천의 자락은 좌우대칭으로 정리된 모습이다. 좌우 구름도 단정하게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문수보살 벽화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럽다. 문수보살의 눈도 졸린 듯 풀려 있다. 고요히 삼매에 드셨다. 그에 비해 보현보살 벽화는 역동적이고 힘이 충만하다. 양팔에 걸쳐 있는 천의 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는 듯 뒤로 물결친다. 층층이 바림을 푼 구름도 뒤로 퍼져 흐른다. 소재마다 운동에너지가 기운생동하다. 붉은 연꽃 가지를 손에 쥔 보현보살의 오른손 검지를 보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보현보살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자, 저기 중생 속으로! 보현행원의 십대원의 깃발 들고 코끼리처럼 흔들림 없이 성불의 한길로 굳세게 나아가자! 보현보살 벽화 속에 범종의 울림이 있다.

바람에 흔들리거든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현보살 벽화 아래에 가서 저 소리 들어라.



노재학 작가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6월07일 출발~13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출발확정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